

결실을 알려주는 와인, 그리고 건축 첫번째 이야기

Wine telling fruit, and first story of architecture

글. 김성환 Kim, Sungwhan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GmbH (München)



포도농장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의 무더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다가온다. 여름내내 강한 햇빛에 푸르른 기운을 내던 자연은 하나둘씩 올해의 결실을 맺으러 준비한다. 농부들은 올 한해 정성스럽게 수확한 작물을 들고 나와, 올해의 결실을 알리는 축제를 시작한다. 먹거리가 가득하고 도시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수확의 즐거움을 나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와인이다. 모든 고기요리부터 시작하여 생선, 샐러드 어디하나 빠지지 않고 어울리는 것이 와인이다. 기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과 후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간은 어느덧 다음 날을 향하고 있다. 프랑스, 칠레등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독일 서남부에 위치한 슈투트가르트에서 와인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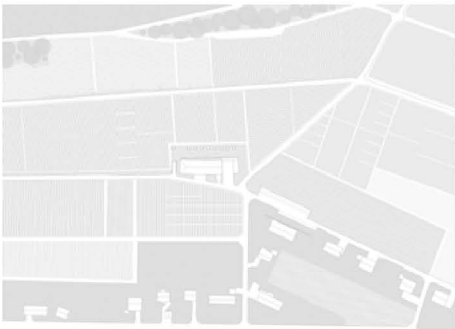


슈투트가르트의 와인 축제

8월 중반이 지나가면 슈투트가르트 시내에는 시청 앞 광장에 많은 자재들이 들어온다. 자재는 모두 작은 오두막집을 위한 것으로, 지방의 전통 목조 가옥의 분위기를 담아내는 구조물들이 대부분이다. 슈투트가르트 와인 축제를 알리는 연두색 깃발이 시청앞 광장을 메꾸고, 독일 남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 오오 모여 앉는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와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새로운 품종을 알리고, 전통을 알리고자 여기저기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전통적으로 뷁르템베르크 지역(Weinbaugebiet Württemberg)에서 나는 와인이 주를 이루는데, 이 지역을 관통하는 넥카강(am Neckar)을 따라 멀리 보덴제(Boden See)에서 시작해, 튀빙엔(Tuebingen),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그리고 하일브론(Heilbronn)까지 연결된다. 온후한 기후와 석회질이 풍부한 토양, 뜨거운 여름과 햇살이 가득한 가을, 겨울의 대륙성 기후가 이 지역의 와인의 품질을 한층 올려준다.



오스터핑엔(Osterfingen) 와이너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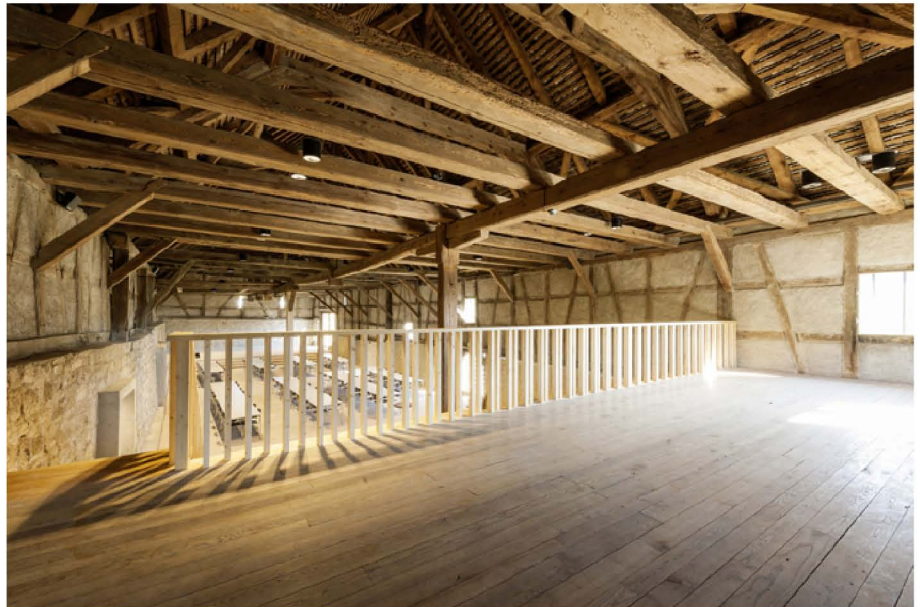
오스터핑엔(Osterfingen) 와이너리 배치도

보덴제 지역은 와인을 대표하는 지역중에 하나로서, 오랜기간 동안 포도를 재배하고 이를 숙성시키고 저장하는 와인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달하였다. 독일과 스위스 국경지역에 위치한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은, 지난 1584년 도시 인근 마을 오스터핑엔(Osterfingen)에 마을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를 준공했다. 이후 약 400여년 동안, 그리고 오늘 까지 인근 지역에 와인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2007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와이너리를 단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마을사람들이 쉽게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며, 와인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물을 짓고자 공모전을 실시한다. 2010년 스위스 건축사 그룹 SPPA는 수년간 경험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족시켜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2015년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

SPPA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 인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와이너리를 크게 헤치지 않고, 인근 지형을 활용하여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설계를 제안했다. 이미 4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물을 건드리는 것은 보존 가치에 의해 제한됐다. 이에, 새로운 건물은 기존 건물과 확연히 차이는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고, 대신 미니멀한 양식을 제안하여 화려함은 최대한 절제하려 했다. 그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존 400년된 와이너리 건물과 새로 들어서는 콘크리트 양식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자 함을 추구했다.



오스터핑엔(Osterfingen) 와이너리 외부



400년된 역사를 지닌 오스터핑엔(Osterfingen) 와이너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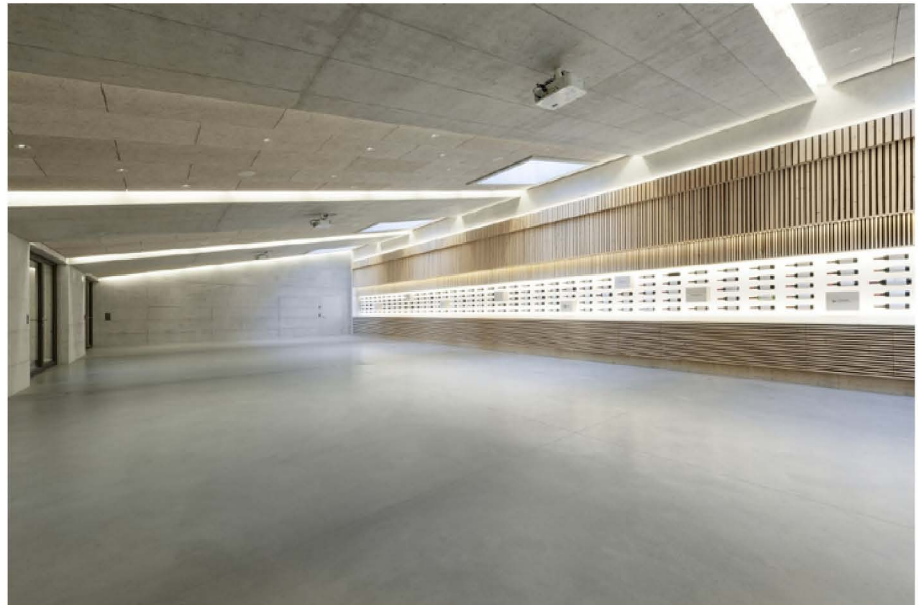
400년된 와이너리 건물과 새로 들어선 콘크리트 양식 건물의 조화



채광을 이용해 다각도로 빛이 들어오는 공간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이미 400년의 시간을 지닌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는 콘크리트 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연결고리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디테일은 건축사에게 많은 경험과 숙련도를 요구하였고, 신구의 조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하였다. 기존 건물이 가지는 와이너리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게 하고, 새로 들어서는 공간에는 많은 이벤트와 전시역할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채광을 이용하여 빛을 다각도로 사용하여 공간이 가지는 특색에 차이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적인 부분은 지역의 기후와 특색을 이해하는 와이너리 숙련자가 함께하여, 건물의 기능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을 동시에 지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출콘크리트가 가지는 거친 표면감은 옛날 치수석이 가지는 시간과 재질감과 어우러질수 있었다.

다음호에서 계속됩니다.



이벤트와 전시를 위해 새로 증축된 공간